영화 〈사랑을 위하여〉로 본 '백혈병'

정말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듯 창백한 얼굴에 퀭한 눈동자, 삭발한 머리에 둘러쓴 두건, 독을 죽이기 위해 독을 맞고, 치료 후 변기를 잡고 밤새 토하다 지쳐 쓰러지는 남자와 그 모습을 지켜보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여자의 사랑이야기 〈사랑을 위하여〉. 이 영화 속 남자주인공 빅터의 병은 백혈병이다.

글 이정미 기자

죽어가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10년째 병을 앓고 있지만 매력적인 청년 빅터. 한 여자가 있다. 그녀는 동거하던 애인에게 배신당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힐러리. 〈사랑을 위하여〉는 생기발랄하고 자유분방한 23세 힐러리(Hilary O'Neil; 줄리아 로버츠 분)와 완고하고 독선적인 28세 백혈병 환자 빅터(Victor Geddes; 켐벨 스콧)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빅터는 힐러리에게 일거리를 준다. 주기적으로 받는 화학치료 후 찾아오는 엄청난 고통. 그 고통에 시달릴 자신을 돌봐줄 간병인으로 힐러리를 선택한 것이다. 힐러리는 주당 400달러라는 좋은 조건으로 빅터의 집에 머물지만 죽어가는 남자를 지켜보는 것만큼 큰 고통이 있을까.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힐러리에게 빅터는 병이 다 나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 몰래 한적한 시골로 여행을 떠난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다 나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빅터의 병은 서서히 악화되고, 결국 힐러리 몰래 모르핀을 맞으면서 견뎌낸다.

빅 터 : 전 애가 아니예요. 그냥 힐러리와 단 둘이 있고 싶었을 뿐이예요.

아버지 : 그래, 좋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야 하잖니. 왜 중도에 포기하려고 한 거냐?

빅 터 : 힐러리한테 머리 기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항암치료로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 사랑하는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머리 기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빅터를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아려온다.

감기처럼 시작되는 백혈병

백혈병이란 말 그대로 하얀 피를 뜻하는데, 이 질환의 발견자 R.피르호가 1846년 환자를 부검할 당시 피가 하얗게 보임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다. 이 병은 혈액에서 발생된 암으로 골수의 조혈조직, 비장, 임파 결절에 암이 생기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과립구, 임파구, 단핵구 중 한 가지 백혈구가 조절할 수 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백혈구의 수는 혈액 1㎖ 당 6,000~8,000개가 정상적인데 반해 백혈병에 걸리면 백혈구가 10만이나 20만, 때로는 1,000만으로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혈액 세포가 증식할 수 없게 되고, 골수의 조혈기능이 마비되어 이상세포가 각 장기와 조직에 침입함으로써 환자는 몇 개월 사이에 사망하게 된다.

백혈병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 림프성, 골수성, 단핵구성 등으로 분류하고, 임상경과에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급성 백혈병은 젊은 사람에게 잘 걸리는데, 특히 1~5세 때 자주 발병한다. 피로, 두통, 심한 편도선염, 관절과 뼈에 심한 동통, 빈혈, 체중 감소 등과 출혈이 잦아진다.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에 퍼진 감염과 심한 출혈로 인하여 2~3일 혹은 2~3개월 내 사망한다.

만성 림프성 백혈병은 림프구가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증식하여 림프절과 림프조직에 축적되고 결국에는 골수, 간, 비장에 침윤된다. 50~70세 사이에 빈도가 높고, 여자보다 남자가 3배나 더 걸리기 쉽다. 대부분 수 년 동안 증상이 없다가 25%는 관례적인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감으로써 진단된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25~60세에 주로 나타나며 과립구의 비정상적인 증식이 특징이다. 대부분은 성숙한 것이지만 약간은 미성숙한 것들도 있다. 백혈구가 말초순환에서 빽빽하게 흐르고 골수 내에 밀접하게 축적되며, 간장, 비장 그리고 다른 조직에 침범한다.

백혈병은 특이한 자각증상이 없으므로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로 생각하기 쉽다. 초기에는 발열, 피로, 빈혈이 생기면서 코피가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치은출혈 등 출혈성 경향이 나타나며 배가 부를 때도 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감염과 혈소판 부족으로 인한 출혈이다. 백혈병이 진행되면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가 없는데, 망막에 일어난 출혈은 실명을 초래하고, 대뇌에서 일어난 출혈은 뇌졸중을 일으킨다.

위험한 병이라고 미리부터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치료법은 있는 것이다. 요즘은 항암요법, 골수이식 등 다양한 치료요법이 발달해 백혈병의 치료가 많이 진전되고 있어 수명연장은 물론 완치를 목표로 할 정도니 희망을 가지기 바란다.